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 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 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 苦駸駸
두 변 세 월 고킴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籝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제7회 둔촌이집 문학상 시상식 개최



둔촌문학상 시상식 참석 내외빈

옛 광주군을 본향으로 하는 광주이씨의 1대조 둔촌 이집(1327~1387, 고려말 성리학자,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선생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고 한국 문학발전을 위하여 한국작가협회가 제정하고 둔촌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이씨 대종회에서 후원하는 「둔촌 이집 문학상」 시상식이 2024년 9월 21일 오전 11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20 둔촌 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전날 밤부터 비가 내려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히 시상식 개최 30여 분전부터 비가 그쳐 큰 불편없이 개최할 수 있었다. 시상식에는 대종회를 비롯 10개지파 회장 및 임원들과 많은 기성작가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이날 시상에서 본상에는 백시종 소설가의 소설집 「삼봉이 순자연대기」가 우수상에는 오대혁 평론가의 평론집 「연등문화의 역사」가 수상하였다. 부상으로 본상에 1천만원 우수상에는 5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둔촌문학상 수상자들과 함께



둔촌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약력

본상 백시종



■ **등단** : 전남일보 장편소설 공모당선(1966), 동아일보·대한일보 신춘문에 데뷔(1967), 현대문학 추천안료 (김동리 선),

■ **약력** :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 **저서** : 창작집 - 주홍빛 갈매기(2007), 그 여름의 풍향계(2009), 서랍속의 반란(2010, 돼지감자꽃(2013)

장편소설 - 「물」(2008), 「풀밭 위의 식사」(2011), 「강치」(2012), 「수목원 가는 길」(2014), 「팽」(2015), 「오음하르 음악회」(2016), 「물 위의 나무」(2017), 「호아저씨를 기다리며」(2018), 「누란의 미녀」(2019), 「여수의 눈물」(2020), 「황무지에서」(2021), 「삼봉이 순자연대기」(2022), 「쑥떡」(2020)

■ **수상** : 한글소설문학상, 오영수문학상, 채만식문학상, 류주현문학상, 중앙대학문학상, 노근리문학상, 한국PEN문학상, 황순원문학상양평문인상, 김동리문학상(2020), 세종문화상 예술부문(대통령표창)(2021),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2022) 수상

〈다음페이지에 계속〉

우수상 오대혁



■ **등단** : 국문학 박사 및 문화평론가, 월간 <신문예> 시·문학평론 등단
■ **약력** : 동국대학교·서울교대·광운대학·영남대학 등 외래 강사,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연구이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 행정고시학원 강사,

제주일보 논설위원, 피앤피뉴스 논설주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

■ **저서** : 공저 - 「설화와 역사」 「한국민족문화사전」 「문화콘텐츠와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 「한국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원효 그 위대한 생애」 등 다수
평론 - 「원효설화의 美學」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한국문학개론」 「부설전의 미학과 사상」 「연등문화의 역사」 「고려시대 인물 전승」 등 다수
■ **수상** :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 일연학술상, 한글문인협회 표창 등 다수

2024 둔촌 이집 문학상 심사평

심사위원 : 김유조, 유한근, 한상렬, 김길형, 김건중

본상

백시종 장편소설 「삼봉이 순자 연대기」

이 시대에 절박한 비망록

소설은 탄탄한 플롯에 서사와 묘사가 잘되고 이를 통해 제기할 만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제하에 백시종의 「삼봉이 순자연대기」는 앞서 말한 것에 딱 들어 맞는 소설이다. 그동안 20년 세월 동안 소설을 써온 백시종 작가는 좋은 상상력과 날카롭게 버린 언어로 문학의 공공성을 증언해 왔다.

「삼봉이 순자연대기」는 60~70년대에 한국의 경제성장 이면을 또 다른 시각으로 탐색한 장편소설이다. 이소설의 지평은 이기주의에 오염된 공정성 담론과 결연하고 상호의존적이고 이타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그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데까지 확장시킨 소설이다. 이를테면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쓰레기더미를 아들 세대가 해결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전공하려는 핫산의 세계 같은 것, 생명공학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가 방글라데시 국토에 쌓인 합성섬유 쓰레기더미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공정이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방향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세계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일이 우선임을 말하고 있다. 어쩌면 이소설은 성공에 집착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함에 무지했던 삼봉이 손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남긴 ‘쓰레기 산’을 떠안아야 하는 상규, 핫산들을 위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이 소설은

지금 우리가 서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좌표화하기 위해 쓴 절박한 비망록과도 같다. 어쨌거나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이런 큰 문제를 제기한 백시종 소설이 믿음직스러웠다. 이에 제7회 둔촌이집문학상 본상으로 선택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수상자의 건필을 빈다.

우수상

오대영 평론집 「연등문화의 역사」

등불 문화의 의미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 등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밤을 밝히는 하나의 도구를 떠나 우리 인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각한 작가는 인도, 중국, 한국으로 이어진 수천년 등불 역사를 종교와 문화, 민속, 예술 등의 영역에 걸쳐 고찰하였다.

마침 2020년 11월 17일 연등회가 유네스코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이 연구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고 다양한 소원을 담아내는 도구로 생각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등을 깊이 고찰하고 연구한 점과 이를 통해 역사를 통한 인간의 삶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여 제7회 둔촌이집문학상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축하와 함께 끊임없는 연구를 기원한다.

대중회 임원진 추석 성묘



시조 판서공(휘 당) 묘소 참배

2024. 9. 19(목) 추석이 끝나고 바로 이튿날 대중회 임원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광릉골 소재 시조 판서공(휘 당) 묘소를 찾아 성묘하였다. 성묘에는 승호 칠곡종회장, 병구 석담선생 16대 종손, 석담종회 병국회장, 감호당공종회 준석 부회장,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태동 위원장과 상기, 수만, 종석, 경석 위원이 함께하였다.

이날은 여름내내 계속되었던 폭염이 끝나지 않았는지 마지막 기승이라도 부리려는 듯 아침부터 강한 햇빛이 내려 쬐는 날씨에, 성묘를 마친 뒤 최사간공의 모후인 영천이씨 묘소에도 간단히 예를 올렸다. 이어 일행은 곧장 경북 칠곡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석담공종회에서 주관하여 조성한 석담종중 자연장지를 둘러보고,



감호당 사당 송모사 참배



추모재 사당(둔촌 선조, 청백리공) 참배

매월리 감호정사를 방문하여 감호당 사당 송모사에 참배한 뒤, 감호정사에서 담소를 나누고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은 3시가 넘어서야 출발하여 상경하였다.

또한 2024. 9. 20(금) 대종회 임원들은 전날에 이어 아침 일찍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 24-1 시조비 인화이씨(仁華李氏) 묘소에 들러 성묘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시조비 묘역에 당도했을 때는 다행히도 비가 조금 누그러져 간단히 성묘를 마치고 성남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남에 도착하니 빗줄기가 강해져, 부득이 둔촌 선조와 청백리공 선조 사당에 들러 참배로 성묘를 대신하였다. 일행은 성남에서의 성묘 일정을 마치고 곧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공원길 156-26 충희공(휘 인손) 묘소에 당도했으나, 비가 그치지 않아 역시 사당에 들러 참배로 성묘를 대신하고 귀경길에 이포나루 봉서정을 찾아 둘러보았다.

경내에 들어서니 마당에는 벌초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잡풀이 자라있었다. 후일 들은 얘기지만 며칠 전에 벌초를 했으나 그

사이에 많이 자랐다고 한다. 그동안 자주 찾아보지도 못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 건축물 여기저기 훼손 부분이 보이고, 특히 마당은 고르지 못한 탓으로 물 웅덩이가 있어 배수가 되지 못하고 잔디가 모두 고사하여 잡풀이 온 마당을 덮고 있었다.

추후 경내 보호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거나 벽을 둘러치는 등 대책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지만 현재 상황은 쉽지 않은 듯 하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다짐만으로 대신하게 된다.

2024년도 광주이씨 선조 세일사(歲一祀) 일정표

구 분	2024년(양력)	위 치	연락처
시조 판서공(휘 당)	11월 2일(토)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121 (광릉 1길 23)	02-735-1720
시조비(인화이씨)	11월 4일(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 24-1 (하남대로 888)	
둔촌선생(휘 집)	11월 5일(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청백리공(휘 지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1	
사인공(휘 장손)	11월 5일(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02-2212-5227
대사간공(휘 극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	
관찰사공(휘 예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	02-595-5656
광원군(휘 극돈)			
좌통례공(휘 극견)	11월 10일(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산 55-1	02-2212-5227
충희공(휘 인손)	11월 6일(수)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공원길 156-26	010-8242-1910
참판공(휘 극기)	11월 8일(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3	02-2212-5227
한음상공(휘 덕형)	10월 9일(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476-4 (쌍송재)	02-2213-5316
문경공(휘 극감)	10월 11일(금)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 90-1 (수회길 97)	02-6291-1100
광천부원군(휘 극증)	11월 7일(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34-1	02-472-8209
목사공(휘 지유)	11월 9일(토)	경기도 하남시 항동(고골) 산 64	010-5203-3427
문숙공(휘 지강)	11월 10일(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67-1	010-2582-6928
광릉부원군(휘 극배)	11월 12일(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 12-4	02-3426-1096
십운과공(휘 자령)	11월 10일(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97	010-6338-6547

대중회 단신

■ 대중회 자문위원회 개최

2024년 9월 3일(화), 대중회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12분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심양 촌백일장

2024년 9월 28일(토), 중국 랴오닝성 성도 심양시에서 중국 둔 촌백일장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지파중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중회

■ 광림군(廣林君 諱 廷立) 시문희공(諡 文僖公) 불천위제 봉행

광릉부원군파 중회(회장 봉수)에서는 2024년 9월 9일(월) 문희공(휘 정립) 429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불천위제에는 대중회 용두 상임 부회장을 비롯해서 충희공 중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 중회 재석 회장, 그리고 지파 중 회장 및 집행부, 본 손에서는 광명 중회 양수 부회장, 김포 이언공 중회

주돈 前 회장, 광주 대쌍 중회 주신 회장, 복수 前 회장, 부제학공계 안성중회 종훈 회장, 부제학공계 이천 중회 종현 회장, 참의공 용원 회장, 중회 두영 임원과 참사 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와 봉수 회장 인사, 지파 중 회장 인사, 그리고 문수 총무로부터 문희공 선조님 행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제례에는 종봉 화수회 총무의 집례로 축에는 본 중회 만재 부회장, 집사에는 종철, 종경, 문재(문경공파), 무환(좌의정공파) 현종이 맡아 수고하였으며, 초헌례에는 봉수 회장, 아헌례



문희공 불천위제 봉행

에는 문경공파 중회 경수 회장, 종헌례에는 관찰사공 중회 재석 회장이 각각 헌작하였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릉부원군파중회 총무이사 문수記

■ 광림군(廣林君 諱 廷立) 시 문희공(諡 文僖公) 신도비

추충분의평난공신(推忠奮義平難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광림군(廣林君) 이공(李公) 비명

경신년에서부터 신묘년까지 10년 사이에 새로이 조정(朝廷)에 나간 사람으로 친구가 3인이 있으니, 발자취를 같이하고 어깨를 견주며 글로써 서로 모이고 도(道)로써 강론하는데, 그 사람은 이상공 명보 한음의 자(字)요, 또 사람은 이 참판 자정 광림군의 자(字)이요, 또 한 사람은 나이(항복)로서 같이 선종(宣宗)을 섬기니 세상에서 삼학사(三學士)라 하였다. 하루는 내가 자정(휘 정립)에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인간성의 장단점을 가리며, 이 세상에서 잘 모르는 것을 말하였더니 자정(휘 정립)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말하기를 신(神)인가 어떻게 나의 일을 잘 가려내는가 하였다. 이것은 내가 자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서로 쳐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참으로 지기지우(知己之友)로다. 다른 날에 내가 먼저 죽으면 자네가 묘지문(墓誌文)을 쓰고, 자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자네의 묘지문(墓誌文)을 쓰기로 하고, 서로 잊어버리지 말기로 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후 을묘년에 나이 40으로 여산에서 객사를 하니, 上(임금)께서 삼도(三道)에 명

을 내려 호상(護喪)하고 廣州(현재 주변)에 있는 선인의 묘소 근처에 장례를 지냈다.

그 후 20년이 지나 今上(임금) 7년이 되는 계축년에 크게 공신을 봉(封)하는데, 원종했던 모든 신하들이 다 계급(階級)을 올리게 되어 예(例)에 따라 영의정 증직을 받으니, 그의 아들 현담이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며 명을 부탁하였다. 이해에 명보(한음 이덕형)가 죽으니, 내가 울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수(壽)를 다하지 못하고 두 친구가 다 죽고 나만이 남아서 연달아 두 집안의 지문(誌文)을 쓰는 일을 보게 되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그 차마 못 할 일이다. 李氏는 광주대성(廣州大姓)으로서 그 시조에는 휘 집(諱 集)이라는 분이 있는데 탁월한 큰 절개(節概)가 있어서 목은(牧隱 이색) 포은(圃銀 정몽주)과 특별히 좋은 벗으로 삼았다. 일찍이 요승(妖僧) 신돈의 부도(不道)한 행동을 나쁘다고 하였더니 신돈이 죽이기를 꾀함으로 부친을 업고 남으로 내려가, 영천에 숨어서 자기(自己) 호(號)를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조선(朝鮮) 조에 들어와서, 아들 지직(之直)이 소도지변(昭悼之變)을 당하여 말고뼈를 잡고 두드리며 간(諫)함으로 크게 이름이 났었고 그 아들 인손은 우의정(右議政)이요, 그 아들 극배는 영의정(領議政)이요, 증손에 이르러 이건(以乾)은 유곡 찰방으로서, 증직이 좌승지요, 휘 시무를 넣으니 장례원판결사로서 조용하고 깨끗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고 남들과 교제하기를 삼가하였으며, 고사전(高士傳)에 이름이 뛰어났다. 이조판서에 증

직을 받았으며, 종실(宗室) 의원군 억(億)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가정병진(嘉靖丙辰)에 자정(휘 정립)을 낳으시었다, 자정을 낳으신 뒤 아씨(阿氏)가 병이 들어 젓을 먹일 수 없으므로 한 비복(婢僕)이 안고 외가로 데리고 갔다.

그 후 4세에 어머니에게 돌아오니 하는 행동이 보통 아이와 달라서 한 집안이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11세에 한서(漢書)를 최사문 립에게 배우는데 립(岌)이 항상 당세에 제 일류라고 칭찬하였다. 13세에 삼도부(三都賦)를 가지고 박사암(朴思庵) 순(淳)에게 보이니 사암이 크게 기특히 생각하였다. 그 후 이름을 크게 떨쳐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李氏 집에 문장아(文章兒)가 있다고 하니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다 한번 보고 싶어 하였다.

병자년에 성균관에 올라가고 경진년에 과거에 올라 의정부에 뽑혀 들어가고 신사년에 사관으로 천거 받고 임진년에 승진하여, 예조좌랑 사간원 정언, 병조좌랑, 홍문관 수찬을 역임 하였다. 그 때에 율곡이 마침 전문형(典文衡)이었는데, 어느 날 경연자리에서 선종(임금)의 말씀이 근일에 훈의강목(訓義綱目)을 강의하고자 하는데 연소하고 재주가 있는 총명한 신하를 몇 명만 뽑으라. 내가 미리 내장(內藏)된 어질(御秩)을 주어 강독하게 해서, 고문으로 삼고자 한다. 라는 명령을 내리니 조정(朝廷)에서 눈을 씻고 자세히 살피었다.

이때 율곡이 5인을 천거하니 명보(한음 이덕형)와 자정(이정립)과 내가(백사 이항복) 같이 참여했다. 서당에 있게 되어 휴가를 내리는 명을 받게 되

니 한 때는 영광스러웠다. 이로부터 우리 3인은 벼슬 지내기를 대략 서로 같이하였다. 계미년에 이조좌랑이 되고, 명년에 어사(御史)로서 호남 땅에 살기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였고, 이때부터 이조, 병조정랑과 양사의 지평, 헌납, 홍문관 교리를 지내고, 기축년에 옥사(獄事)가 일어나 나와 같이 국청(鞠廳)의 낭관(郎官)이 되었다가 평난공신(平難功臣)으로 책봉 받고 또 장령, 집의, 사간, 응교, 전한, 직제학을 역임하고 신묘년에 승진하여 동부승지를 하였고, 얼마 있다가 형조참의로 옮기고 얼마 후 좌승지가 되었다.

임진년에 선종(선조)께서 서(西)쪽으로 파천하여 금교역에 이르러 쓸 때 자정(이정립)이 말씀드리기를, 종사의 위판(位版)이 아직도 개성에 남아 있다고 아뢰니 上(임금)께서 곧 예조참의를 삼고, 가서 모셔오라 하니, 곧 바로 달려가서 성(城)밖에 이르니, 백성들이 달려가서 말하기를, 적장이 왔으니 헛되이 죽음만 당할 뿐 아무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곧 바로 성안으로 들어가서, 목주(木主)를 모시고 나와 평양까지 가게 되니, 벼슬을 병조참판으로 제수하였다. 적세가 날로 급하니 선종께서 장차 평양을 떠날 때 양궁(兩宮)길을 갈라서 가게 되니 나는(백사 이항복) 병조판서로서 임금을 뒤흔치고 서쪽으로 떠나고, 자정(이정립)은 병조참판으로 중전(中殿)을 호위하고, 동궁(東宮 왕세자)을 뒤흔치고 자산으로부터 순천, 개천, 희천을 거쳐 장동 평전을 둘러, 곡산에 이르러 쓸 때 부친상을 듣고 돌아갔다.

계사년과 갑오년 3년에 걸쳐 기용할 것을 명(命)하였으나, 상례(喪禮) 중이라며 굳이 사양하기를 변함이 없으니, 上(임금)께서 특별히 옮겨 여기 시고 제수(祭需)를 내리시어 예(禮)를 베풀었다. 3년 상(喪)이 끝나니 한성부 우윤을 배(拜)하시고, 나아가서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 때 임금의 명이 있어 나이가 बी니, 上(임금)이 말씀하기를 서(西)행 할 때 상(喪)을 당한 비참(悲慘)했던 일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시니 자정이 울면서 그 때 시국형편(時局形便)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황해도에 들어가 먼저 효자와 열녀 그리고 모든 장사(將士)들이 공을 세우고도 모르고 있는 사람

들을, 일일이 물어서 다 응분의 표창을 하였다. 때 마침 조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질서를 위한 법을 정하였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으니, 탐관과 교활한 아전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구 굶어 먹고 있는 지라 자정(이정립)이 아독(牙蠹 감사의 깃발)을 세워 비록 대관의 의범(儀範)이 있었으나, 그 행장(行裝)은 오직 일숙(一束)의 서책(書冊)뿐이었다. 자신의 몸가짐과 아래 사람을 단속하는데 엄정하여, 하나도 사(私)가 없는지라, 모든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손을 거두고 감히 불법한 일을 못하였다. 얼마 후에 병으로 사임하고자 하니, 유서애(柳西厓 유성룡)가 비변사로 있으면서 말하기를, 재신(才臣)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맑기가 이모(자정 이정립)같은 사람을 어디서 얻어 오겠는가 하였다.

선종(宣宗)에서 과연 자정(이정립)이 국사를 위하여 진심을 담은 것을 알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움을 걱정하다가, 공이 두 번이나 사임하고자 하니 비로써 허락하였다. 이 후 조정에 들어와 광림군(廣林君)에 봉군 되었다. 자정(이정립)이 도승지 이순인(全義人)의 따남에게 장가 들어 3남을 낳으니, 현담, 원담, 두 형제는 음(蔭)으로 벼슬에 보(補)했는데 다 아들이 없고 그의 막내 진담은 사인(士人)인데 2자를 낳으니 다 어렵다. 도승지(丈人 이순인)께서 임금의 행차를 따르다가 도중에서 별세하니 이때에 여산(礪山)에 들렀다가 장사(葬事)키로 해서 자정이 돌아가 장례(葬禮)를 치르기로 하였는데, 마침내 그 장지(葬地)에서 세상을 떴다. 자정(子政)의 휘(諱)는 정립이오, 자호(自號)를 계은(溪隱)이라 했다. 처음에 자정 같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학(道學)으로 향(向)해서 울곡(栗谷)과 우계(牛溪)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학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루 일세(一世)의 名士와 널리 사귀어서 모두 다 수양하는데 힘이 되었고, 본래 성색(聲色)과 화리(貨利)에 욕심을 갖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아주 버리거나 금제(禁制)하는 법이 없고 스스로 그 옳고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나, 사람과 더불어 서로 경계가 없어서 종일(終日)토록 서로 이야기 하여도 언제나 어긋남이 없고, 얼굴

에 나타내지 않았다.

남의 한 가지 잘한 일을 들으면 문득 공경하고 탄식하여, 그대로 두지 않았으며 관(官)에 있어 일을 만났을 때에는 먼저 그 의(義)나 이(利)나를 살펴서 이로운 것 같으면 급히 일어나, 피(避)해서 장차 자기에게 큰 해나 끼쳐 망치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고, 의(義)로울 것 같으면 용맹하게 달려가서 좋고 욕심나는 것같이 하여, 공경스럽고 공경스럽게 하며 조심성 있게 다루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생겨 종신(終身)토록 누(累)가 될까 두려워하였다. 부모를 섬기는데 지극히 효도하여 출입할 때면 반드시 고(告)하고 조석으로 반찬을 살펴보고, 아침부터 되시고 저녁까지 떠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제매(弟妹)들이 가난해서 의지할 때 없는 것을 가엾게 여겨 田土의 미호(美好)한 것을 골라서 우선 먼저 주고, 생산 작업에는 문득 못 본척하며 독서하고, 저문함에 있어서는 항상 모자라는 듯하며, 고요히 일실(一室)에 처(處)하여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점심때가 되도록 밥 먹을 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으니, 세상 사람이 초현(草玄 楊雄의 著)에 비유하더라. 銘하여 日

온화(溫和)한 듯 엄숙한 듯.

(溫然栗然)

저 옥(玉)이 박(璞)으로 있는 것인가.

(玉在璞者耶)

으스스한 듯 서늘한 듯

(洞然洒然)

저 얼음 산 구렁에 있는 것인가.

(氷在壑者耶)

광주(廣州)땅 남쪽

(廣陵之南)

구천(狗遷현 강동)아래 쪽에

(狗遷之脚)

사척(四尺)높이의 봉분(封墳)이 있으니

(有封之崇四尺者)

이것이 곧 그대의 현택(玄宅)이로다.

(是爲君之玄宅)

— 문충공 오성 이항복 찬 (文忠公 鰲城 李恒福 撰)

■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 9월 월례회의 개최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2024년 9월 20일(금) 9월 화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종길 화수회장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내빈으로 문경공파 동고 종회 응재 총무, 광천부원군파 종회 종두 총무, 충희공 종회 조미현 홍보위원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회의 전 회원들은 광릉부원군 파조님 부조묘에서 주과포를 진설하고 추석 명절 참배를 드리고 파조님의 은덕을 기렸다.

이후 종봉 총무의 진행으로 참석 내빈 소개, 국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

민의례, 순국선열 및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 종길 회장 인사, 종회 만재 부회장 인사, 종철 대종회 산악회장 인사, 그리고 문수 총무로부터 종회 소

식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종길 회장은 인사에서 금년 여름은 유독 긴 장마와 작금까지도 폭염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하고, 건강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고, 종회 만재 부회장은 인사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선조님들의 세일사에도 건강을 유지하셔서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인사하였다. 이후 기타 사항을 토론한 뒤 회의를 모두 종료하였다. 회의를 마친 회원들은 자리를 식당(마포 갈비집)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송조독목의 시간을 보낸 후 귀가 하였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記

■ 추석 명절 충희공 선조님 묘소 참배

충희공종회(회장 경래)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024년 9월 24일(화), 충희공 선조님 묘소를 찾아 성묘를 드렸다. 이날 성묘에는 경래 회장을 비롯해서 5군 지파 종회장장과 집행부 및 참사 종인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승재 총무가 정성스럽게 주과포를 준비하여 진설한 후 경래 회장 인사와 일봉 덕 봉수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후 무척



충희공종회 성묘를 마치고

단잔으로 참석자 모두 참배를 드렸다. 참배를 마

친 후손들은 묘전에서 선조님을 기리며 음복하고 음덕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경래 회장은 인사에서 아침 일찍 경향 각지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할아버님의 음덕을 많이 받고 가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이후 후손들은 여주시 소재 음식점(왕터 민물매운탕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매운탕과 식사를 하며 송조돈목의 시간을 보낸 후 귀가하였다.

- 충희공 종회 총무 승재 기

문경공파종회

■ 문경공파종회 2024년 추석 성묘

문경공파종회(회장 경수)에서는 갑진년 추석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9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파조님(諱 克堪) 및 선조님들의 묘소를 찾아 성묘 하였다.

24일에는 먼저 충희공 선조님이 영면해 계신 여

주로 가서 충희공종회(회장 경래) 주관으로 5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5군 종원이 참석하여서 참배를 드린 후 5군 회장들의 덕담을 듣고 충주로 이동하였다.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문경공 파조님 묘소에 도착하여 신도비 및 묘소 주변을 둘러보고 준비해간 주과포를 진설하고 잔을 올린 후 경건한 마음으로 파조님께 참배를 드렸다. 참배를 마친 일행은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문경공 21대 광희 종손 및 충주 지역 종인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음

복과 덕담으로 즐겁게 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귀경하였다. 26일에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구정승굴에 영면해 계신 문경공 파조님의 손자인 정재공(諱 守貞), 증손자인 승덕재공(諱 潤慶), 동고상공(諱 浚慶) 선조님들의 묘소를 찾아서 엄숙히 참배를 드리고 추석 성묘를 마감하였다. 늦더위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종인들과 특히 당일 주과포를 준비해 주신 덕수 현종에게 머리숙여 감사 드린다.

- 문경공파종회 총무 종민 기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휘 극증)외 선조 추석 명절 성묘

광천부원군파 종회 (회장:성호)에서는 2024년 9월 11일 광천부원군(휘 극증)외 7분의 선조님께 추석 명절 성묘를 실시 하였다.

하늘은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에 구름 한점없이 맑은날 성호 회장을 비롯하여 6개 지역종회장을



광천부원군(휘 극증)외 선조 추석 명절 성묘를 마치고

모시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위치한 산에 모셔진 선조님들께 성묘를 하였다. 정성껏 준

비한 제물을 차려놓고 단축단헌으로 잔을 올리고 내려오면서 이하 선조님께도 성묘를 하였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에 식재한 잔디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 무더위에 잘 견디고 있는 나무와 잔디를 보니 마음도 가볍고 산뜻한 기분이 들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선조님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9월이지만 폭염에 땀은 비오듯 흘러 내렸지만 마음만은 푸근한 하루였다. 서로의 건강을 빌며 다음 만남에서도 꼭 뵙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광천부원군파 종회(회장 성호)에서는 2024년 9월 26일(목) 종인들과 화합하고 단합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오곡백과 풍성하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일행을 태운 버스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 예당호 출렁다리에 도착하였다.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 출렁다리는 402m의 길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이다. 야간에는 약20분간 환상적인 음악분수쇼를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야간개장 100선에 오른 예당호 출렁다리이다. 예당호 출렁다리



광천부원군파종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마치고

관광을 마친 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미리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성호 회장의 건배사로 광천부원군파 종회의 발전을 힘차게 외치며 건배 하였다. 흥성에서 원로인 영재 고문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후 충

남 예산군 덕산면 덕송산에 있는 수덕사로 향했다. 수덕사 대웅전은 국내 현존하는 목조 건물 가운데, 봉정사 극락전(보물 15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 중 세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이다.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덕사 대웅전 앞에 올라보니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에 모두가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이번 한마음 단합대회는 2년 격년제로 실시하는 행사로 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날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 종두 기

광원군파종회

■ 광원군파종회 화수회 회의 개최

2024년 9월 27일(금) 광원군파 화수회에서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철 전 회장, 용위 부회장, 은재 부사공종회 회장 3인의 팔순 잔치를 겸

한 회의가 있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1차 회의를 마친 회원들은 인근의 음식점 「소소정」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하였으며 비용은 주인공 3분의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팔순을 맞으신 3분의 주인공에게 축하를 드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 광원군파종회 총무 은재 기



팔순을 맞은 3인의 현종

좌통례공파종회

■ 석담(諱 潤雨) 선생
서세 390주기 불천위제 봉행

2024년 9. 11. 경북 칠곡군 지천면 상지마을 석담종택내 사당 석담사(石潭祠)에서 석담(諱 潤雨) 선생 서세 390주기 불천위제가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내빈으로는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 이우석 칠곡군 청년유도회 회장, 최민상 前 칠곡군 청년유도회 회장, 우태주 칠곡군 청년유도회 사무국장, 이성원 칠곡신문 대표, 장세곤 인동장씨문중 회당선생 주손 등이 참석해 주셨고, 본·방손으로 관찰사공종회 성환감사, 칠곡종회 승호 종회장, 영천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태동 위원장, 대경종친회 수생 회장, 前 광주이씨 청장년연합회 상철 회장, 칠곡 청장년 연합회 충석 회장, 유경공종회 태석 종회장, 진경공종회 만환 종회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제례는 감호당 종중 승호 현종의 집례로 초헌에 병구 석담선생 16대 종손, 아헌에 칠곡종회 승호 회장, 종헌에 칠곡군의회 이상승 의장이 헌작해 주었다. 특히 이날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칠곡신문사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불천위제 봉행 장면을 자세하게 촬영하였으며, 칠곡군내 「해봄 도서모임」 학생들 10여 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면서, 옛 풍습대로 엄숙하게 봉행되는 불천위제를 신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불천위제 봉행 후에는 석담종택 잔디마당에서 내·외빈 및 종인들이 함께 음복하고 답소하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었고, 늦더위를 만끽하면서 석담선조님의 은덕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다.

■ 석담 선생(諱 潤雨) 묘갈명

공의 휘는 윤우(潤雨)요, 자는 무백(茂伯)이오, 성은 이씨이니 따로 자기의 호를 석담(石潭)이라 하였다. 그 선조는 광릉인인데 고려 때에 판전교시사를 지낸 집(諱 集)이 있으니, 옛날에 이름난 분이시다. 자손들이 연달아 벼슬로 크게 이름난 분이 사세(四世)이고 승사랑 지(諱 摯)에 이르러 비로소 성주(星州)에서 살게 되니 공에게 고조(高祖)가 되신다. 증조의 휘는 덕부(德符)이니 성균진사요, 조의 휘는 준경(遵慶)이니 조세(早世)하고, 부의 휘는 희복(熙復)인데 어진 사람이지만 저명하지 못했고, 뒤에 승정원 좌승지 벼슬을 추증 받았다. 모(母)는 도주김씨(道州金氏)이니 도화서별제 승조(承祖)의 따님이다. 공께서 젊었을 때 정

한강(鄭寒岡)선생을 스승으로 모셔서 학문하는 도리를 알으셨다. 23세에 진사가 되고, 그 후 16년 만에 박사과에 뽑혀 성균관지가 되고, 광해초에 정원 주서점 기사관이 됐다가 예문 검열겸 시강설서가 되었다. 그때에 정인홍(鄭仁弘)이 권세를 잡아 일을 할 때라, 공이 사국(史局)에 있을 때 그 하는 행위를 그대로 공개 기록하여 이것이 한찬남(韓贊男)의 트집한 바가 되었다. 그 후 대교 봉교(待敎 奉敎)로 승진되었으나 다 나가지 않았다. 잇달아 벼슬이 떨어져서 전적(典籍)으로 수성도찰방이 되었고 경성부 판관이 되었다. 수성과 경성은 다 변방 막다른 곳이며 여러 천리로서 경성(鏡城)은 옛날 석막(石幕)의 빈터라, 그 풍속이 오랑캐들과 섞여 살아서 더욱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다. 공이 정사를 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잘 사정을 살펴서 다스렸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쇠를 녹여 비를 세워서 지낸 일을 사모하여 마지 않았다. 시대사정(時代事情)이 큰 변이 생기니 다시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상(泗上)에서 예서를 강론하고 있었다. 경신년에 정 선생이 돌아가시니 심상(心喪)의 예를 행하였다.

계해년 인조께서 이미 반정을 하시고 불려서 예조정랑을 삼으시고 다시 사간원 정언을 삼으시고 옥당으로 천거되었고 수찬으로서 교리에 승진하셨다. 갑자년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니 인조께서 남으로 순행하실 때 공이 일찍이 북로(北路)에서 민심을 얻었다 하여 특히 초유어사(招諭御史)로 제수하였다. 그해 응교(應敎)가 되어 정치의 잘못된 것을 의논하고 인하여 임금께 고하기를 「군신의 예가 심히 엄하니 임금님의 위엄을 억제하시고 신하들과 친히 하소서」 하니 상께서 옳다 하고 그대로 좇았다. 병인년 계운(啓運)의 상(喪)이 있었을 때 한결같이 후비(后妃)의 예에 의해 상을 치루니 공이 마침 사간(司諫)으로 있을 때라 예에 어긋나는 것 육사(六事)를 들어 힘껏 다투어 주장했더니 상께서 성을 내어 사간을 바꾸어 성균사성(成均司成)으로 옮겼다가 얼마 후에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지제교(知製敎)로 옮기었다.

다음 해에 세자의 가례(嘉禮)를 행하게 되니 공께서 보덕(補德)으로 통정(通政)의 가자(加資)를 받으시고 담양부사(潭陽府使)로 나가셨는데 정치를 하는데 반드시 학교를 먼저 하고 간활(奸猾)한 일을 못하게 금하니 고을이 크게 잘 다스려졌다. 떠난 뒤에 정청비(政淸碑)를 세웠고 또 흥학비(興學碑)도 세웠다. 신미년에 공조참의가 되셨고 후년(後年)에 풍증(風症)으로 병환이 들어 사직하시고



석담선생 불천위제 봉행

전리(田里)로 돌아 오신지 3년 만에 돌아가시다. 조정에서 벼슬하는 대부로부터 초야의 숨은 선비까지 군자다운 사람이 없어졌구나 하니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여 서로 조상하기를 친척같이 하였다. 공께서 정사 원종공신(靖社 原從功臣)으로서 돌아가시니 이조참판의 벼슬을 더해 주셨다. 공이 융경 3년 11월 4일에 나서서 승년 7년 8월 9일에 돌아가시니 나이가 66이시다. 그해 12월 15일에 도당동 남향원에 장례를 모셨다.

공께서 대현의 문에서 공부하셨으며 집에 있을 때는 부모를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했으며, 참으로 군자다운 선행을 하셨는데, 곧으면서도 혼화스럽고 엄하면서도 용서하시며, 임금을 섬기는 데는 곧은 도(道)로 하시고 고을을 다스리는 데는 백성을 좋은 풍속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초라한 집에서 살며 조용히 마음을 안정하고 물질로 인해 다투지 않고 글 읽기를 좋아해서 항상 자제들한테 이르기를 「하늘의 도는 겸손해야 복을 받고, 사람의 도는 가득차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내가 한미한 집안에서 일어나서 벼슬이 대부의 열에서 서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만족하다. 다행하게 대과없이 지냈으니 바른 사람 소릴 듣고 죽기를 위해 나는 날마다 힘썼던 것이다.」 라 하셨다. 평생동안 자기 행실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사양하고 받는데 반드시 조심성 있게 하고, 도를 지키는데 구차하지 않게 하고, 한결같이 학문을 일으키고 글을 숭상하는데 마음을 쓰시었다. 부인 인천 채씨는 국자생원 응린(應麟)의 따님이시다. 3남 3녀를 낳으니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그중 이름난 사람으로 차남 도장(道長)이 홍문응교가 되었고, 도장의 장남 원정(元禎)은 사농아경이요, 차남 원록(元祿)은 장연도호부사요, 원정의 장남 담명(聃命)은 초사(初仕)로서 성균학유가 되었으니, 자손들이 함께 다들 높히 되었다. 명하니 알 확실하고 청렴하여 화순(和順)스러우면서도 티가 없으니, 가히 가르칠만하고, 가히 본받아 행할 만 하니 과연 군자로다. 노(魯)나라 군자가 없었다면 어찌 이 같음을 취할 수 있으리오!

- 의정부 영의정 허 목 찬(許穆, 1595~1682)

■ 칠곡 석담종중 자연장지 조성
준공식 고유제 행사

광주이씨 석담종중(石潭宗中)에서는 2024년 9월 7일, 칠곡군 지천면 송정도당골 산 1-2번지 일

원에 칠곡군 최초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문중 소유의 자연장지를 조성 준공식 및 고유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고유제 행사에는 서울에서 관찰사공 종회 성환 감사, 종우 총무가 참석하였고 좌통례공종회에서는 용주 총무이사 등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칠곡종회에서는 승호 종

회장을 비롯하여 칠곡종회 산하 12개 지파 종회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 밖에도 영천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태동 위원장, 대경종친회 수생 회장, 칠곡청장년회 충석 회장, 前 전국청장년연합회 상철회장 등 많은 석담종회 종인들이 참석하였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특히 주영 대종회 회장은 9월 7일 준공식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9월 19일 영천시조묘소 추석 성묘를 마친 후, 석담종중의 자연장지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석담종중 자연장지 조성 경위

자연장지가 조성되어 9월 7일 준공식을 가지게 된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도당골내에는 석담종중 소유의 임야가 약 48만평 가량이 있으며, 석담 선조께서 고이 잠들어 계신 곳이다. 그동안 대구 및 경북 일대에 살고 있는 광주이씨 종인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지파를 불문하고 이곳 도당골 임야에 매장이나 화장을 해왔으며, 그러다 보니 도당골내 임야에 묘지가 너무나 많이 난립한 경향이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광주이씨 종인이면 아



석담종회 추모공원 전경

무런 규제없이 누구나 도당골내 종중 소유 임야에 장지를 설치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장지가 난립되어 미관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야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판단하고, 종중에서 문중소유의 장지마련을 고심해 왔으며, 종중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한 후 석담선조님께

서 잠들어 계신 아래쪽 가장 최적의 명당위치에, 자연장지 조성을 하기로 결의한 후 인근의 타 장지를 방문하여 보고 배워서, 2024년 1월에 칠곡군 최초로 자연장지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00㎡에 336기(1기당 면적은 1.36평)의 봉분이 없는 평장 허가를 득하여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9월 7일 준공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장지내에는 주차장과 수세식 화장실,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하였다.

분양 가격은 시중가의 절반 정도인 약 400여 만 원 정도의 분양가격으로, 석담종중에서 영구 보존 관리하며, 광주이씨 종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종중에서 운영방침을 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묘지가 마련되지 않은 종인들께서는 천혜의 명당인 이곳 광주이씨 자연장지를 선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이다.

■ 문익공(諱 元禎) 서세 344주기 불천위제 봉행



문익공 불천위제 봉행

9월 23일(음력 8월 21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동산2길 11 귀암종택에서는 문익공 서세 344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수생 종인의 제례 총괄 진행으로 승호 칠곡종회장, 태동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장 등 많은 봉·방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에는 익주, 아헌에는 태, 종헌에는 정주 현종이 헌작하였으며, 수덕, 태후 종인이 좌·우에서 제례 집전을 도왔다.

칠곡 왜관의 귀암종택에서 매년 봉행되고 있는 문익공 불천위제는 영남과 칠곡, 돌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문익공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까지 널리 알리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익공(文翼公 諱 元禎; 1622~1680)의 자는 사징(士徵), 호는 귀암(歸巖)으로 조선조 후기의 문신, 외교관이자 작가, 서예가, 시인이다. 2차 예송 논쟁 당시 남인측 주요 인사의 한 사람이었다. 1652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사간, 도승지, 대사헌,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이조판서, 홍문관 제학을 지냈으며, 호조판서로 있을 때 윤희와 함께 도체부의 설치와 조세제도의 개선,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썼다. 승정대부 판의금부사에 이르렀다. 그 뒤 1680년 경신환국때 서인의 맹공격을 받고 유배되

었다가 배소로 가던 도중 체포되어 형문으로 서거하였다.

아버지는 부응교(副應敎) 증 의정부 좌찬성 낙촌공 도장(洛村公 諱 道長)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 충익공(忠翼公) 판중추부사 하담(荷潭) 김시양(金時讓)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여 선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으며, 1648년(인조 26년)에 소과(小科) 가운데 '사서오경'을 시험 보던 국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31세 되던 1652년(효종 3년)에 문과에 아원(亞元)으로 급제하였다. 1660년(현종 1)에 중국 황제에게 사은(謝恩)의 뜻을 전하는 사절단인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동래부사, 1673년(현종 14년) 도승지에 오르

고, 1677년(숙종 3년)에 대사간과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공은 1678년(숙종 4년)에 영남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할 때 지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큰 덕을 쌓았고,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에 힘을 쏟아 칭송을 받았으나, 1680년(숙종 6년) 이조판서 재직 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초산에 유배 가는 도중에 조정으로 다시 불려가 심한 고문능 받기도 하였다.

저서에 《귀암집(歸巖集)》 6권이 있으며, 편저에 《경산지(慶山誌)》 2권, 《완부결송록(完府決訟錄)》 1권,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의 읍지인 《경산지(京山志)》 등이 있으며,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12권 6책으로 구성된 귀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에는 두 차례의 청나라 연행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한 연행록(燕行錄)과 연행후록(燕行後錄)이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문집 가운데 「영남진폐소(嶺南陳弊疏)」는 당시 흉년이 거듭되는 영남지방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로 인해 가중되는 백성들의 조세 감면을 간절히 요청한 상소로 인문사회학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묘소는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신평리이며 번

암 채제공(蔡濟恭)이 비명을 지은 신도비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설립되었다. 1871년(고종 8년) 최종 복권되어 문익(文翼)의 시호가 추서되었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불천지위의 명을 받았다.

공의 이러한 큰 업적과 공을 아끼고 죽음을 안타까워 하던 변암 채제공(蔡濟恭)이 지은 신도비의 서문에 「공은 총명하고 영특하기가 보통 사람에 지나침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수많은 글귀를 외우더니 자라서는 글을 읽는데 8행을 한꺼번에 내려읽으니, 그 훌륭한 소문이 크게 떠들썩했다. 인조 무자년에 국자생원에 합격했고, 임진년에 증광문과 전시에 갑과 제2위로 뽑히니 예에 따라 상의원 직장이 되었고, 병신년에 세자시강원 설서에 제수되었고, 천거로 한림이 되었으니 석담부터 낙촌과 공까지 이와 같이 조. 자. 손, 3대가 이어서 한원에 기록된 것이 이 세상에 드문 일이다.」 하였다.

한림 4대(석담, 낙촌, 문익, 낙에)를 거쳐 오면서 영남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성장한 광주이씨 집안의 큰 어른으로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신 선조들의 큰 뜻을 기리고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인문학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문익공 휘 원정 사제문(賜祭文)

유세차 기사(己巳 1689)년 4월 정묘삭 23일

국왕은 신하 예조정랑 이일삼(李日三, 1626~1700)을 보내어 돌아간 판서 이원정(李元禎)의 령(靈)에게 제(祭)를 고하노니, 속아 그릇된 것을 밝게 씻음은 왕정의 급한 일이고, 정령(精靈)을 슬퍼하고 애석히 여김은 사전(祀典)에 법이 있다. 어진 신하가 원통히 죽음은 나라 운명이 달린 것이다. 이제와서 신설(伸雪)됨에 예로써 마땅히 위로해야 할 일이다.

경의 허물없이 억울함을 민망히 여기며 경의 평

생의 자취를 생각하니, 집에 있어서는 순결한 행동이요, 나라를 위해서는 충성을 다 했으며, 이름난 아버지의 시(詩) 예(禮)며 내구(乃舅)의 충절이라. 이것이 한 사람에게 모여 울연(蔚然)하게 끼쳤었네. 큰 그릇 높은 바탕은 천부(天賦)로 타고나고 높은 재주 뛰어난 기상은 공보(公輔)의 여망있도다. 사장(詞場)에서 관역 맞혀 나아갈 길이 빛났도다. 오직 그 굽히지 않는 성격이 그 시대에 맞지 않아 바른 말로 항거(抗拒)하여 저들의 미움 받았네.

벼슬 할 때부터 세자강연(世子講筵)에 뽑히었고 5년 만에 한림(翰林)되니 3세가 이어졌네. 낭관(郎官)으로 선탁(選擢)되어 각조(各曹)를 거쳤으며 고을에 나가서 선치(善治)하고, 사신가서 욕되지 않아 양조(兩朝)께서 알아주매, 어느 누가 방해하리. 저들의 시기로 씹히게 되면 그때마다 임금의 비호(庇護)있었네. 지위와 덕망이 점점 높아짐에 배겨나기 더욱 힘들어 중년에 잠시 쉬고 남쪽으로 자

취 감추었더니 내가 임금자리 이어받아 뽑아서 상경(上卿)에 두었더니, 모든 법도를 내세워서 엄격하게 실시하고 사람 쓰는 것을 공평히 하여 직책을 아니 맡아 본 것이 없고 사무를 많이 겸해서 관리하였으니 줄일 것과 늘릴 것을 조리있게 하였으며, 판의금부사를 명하니 상공자리 가까웠다. 군신간에 지우(知遇)함이 보기 드문 일이었다. 놀라운 사건이 별안간 일어나니 실로 나라의 운명이 관련된 일이었다. 한 요사한 역수(逆竖)를 빙자하여 간신들이 입을 놀려 나의 재상 뺏어가고 나의 충신 죽였도다. 장홍(蔣弘)의 피가 원한(冤恨)을 뿌리니 백일(白日)이 빛이 없도다. 십 년이 지난 뒤에 올바른 원리가 반드시 돌아와 눈이 햇빛을 본 듯 모두가 사라지고 크게 국시(國是)가 정해지니 그 간흉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원로(元老)들을 불러들여 조정에 질서를 바로 잡으니 조정의 백관들이 옛 모습대로 늘어서게 되어 이것을 보니 길이

길이 경(卿)의 영자(英姿) 생각나나 구천(九泉)에 가 누운 사람 누가 일으키겠는가. 지나간 그날의 옛 생각이니 후회한들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 경의 나라 위해 바친 일을 내 어찌 모르리오. 경(卿)의 그 원통함을 내 어찌 슬퍼하지 않으리오. 경으로 하여금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본 뜻이 아니었건만 일이 크게 잘못되어 나 또한 부끄럽고 제일 먼저 원한을 풀어주니 누구의 상청(上請)도 기다리지 않았네.

내 마음 밝힘이 나로서는 다행하네. 외로운 아들 부른 것도 그 뜻이 여기 있어 앞자리에 가까이 하니 경의 전형(典型) 대함 같네. 간곡히 위로하며 타이르니 나의 충심에서 울어 남이라, 한마디마다 목이 메어 슬픈 생각 견잡을 수 없어 예관을 보내 정성어린 제사를 드리니 영혼이여 알 수 있거든 나의 말 들어주오.

독립유공자 소개

애국지사 송재(松齋) 이달영 선생



독립유공자 이달영 애국지사 묘역

애국지사 송재(松齋) 선생은 1911년 10월 15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서 둔촌선조의 19대손이고, 17대조가 관찰사공을 지낸 예손이며, 9대조가 호조 참판 대사헌을 지낸 원록 할아버지를 둔 칠곡 매원에서, 부친 상만 공과 부림(缶林)홍씨 모친과의 삼남 이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셨고, 어려서부터 기품과 지절이 남달리 고결하시고, 충기가 뛰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으셨다. 일제 치하 일본인들의 차별과 박해와 멸시를 통감하는 가운데 왜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뜻을 세워 대구 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게 되었으나, 당시는 3.1 운동이 일어난 뒤라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삼천리 강토가 국권 회복을 위한 의분과 열기가 화염처럼 불타고 있

을 때인지라, 선생께서도 의분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결기하여, 배일 운동에 솔선 참여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고유문화를 말살하는 황국 신민화 교육에 항의하고,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을 주도하시다가, 일제 경찰에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겪으신 후, 학교를 자퇴하시고 고향 매원리에 돌아오셔서 비분강개함을 참지 못하시고, 일본 와세다 대학의 통신 강의록으로 지식을 습득하시면서, 대구고보 동창인 이두석, 정행돈, 박형동 등과 함께 70여 인의 동지를 규합하여 성진회, 형평사등 비밀 결사조직을 결성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망국의 한을 씻기 위해서는 민족 계몽과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통감하시고, 야학을 통한 계몽 운동과 구국 활동

을 하시다가, 1938년 2월에 모든 진상이 일제에 발각되어, 여러 동지들과 함께 왜관 경찰서에 체포되고, 대구경찰서에 이송되는 동안 왜경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시고, 김천 형무소에서 일년 구개월의 옥고를 겪으시는 고초를 겪으셨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학생청년독립운동동지회 회장 이호찬이 성균관대학교 임경석 교수와 숙명여대 강혜경 교수로부터, 1938년 2월 19일 66명이 피검된 왜관독립운동사건의 내용과 자료를 정리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 자료는 일본 동경 경시청과 조선 총독부 경무국, 1939년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또 당시 동아, 조선일보 보도 등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자료로, 상당히 신뢰성이 큰 자료로 여겨진다. 이 자료에 의하면 왜관독립운동은 당시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 보다는 큰 사건이었지만, 아직까지 그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왜관비밀결사”의 농민, 노동자조합 조직과 “재동경조선인 유학생 연학회”와 “재 동경 프롤레타리아 연극계 조선 진출” 그룹의 연합으로, 야학과 독서회, 부녀회들을 통한 계몽 활동과, 조직 강화와 확장으로 진용을 갖추어, 일본이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등에서 전쟁에 몰두하는 것을 기회로 이용해, 일본군 내부의 분열 공작, 군수품 공급 및 수송방해 등으로 후방을 교란시키고 일본을 패전으로 이끌어 조선을 일본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한 사건으로 주동 인물들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군산, 울산, 평안남도 용강 등과 만주 길림성, 일본 동경에서 국경을 넘어온 인물들이며, 20세부터 49세까지의 농민, 노동자, 연극인, 상인, 재봉업, 기자, 인쇄업, 보험사 직원, 대학생 등이었다고 한다.

이때 매원리의 사송헌(박곡 이원록의 불천위 사당)은 야학의 중심 장소가 되었고 후에 매원 초등학교가 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이석 고택은 왜관독립운동의 산실이었다고 한다.

왜관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왜관경찰서에 1938년 2월 19일에 함께 피검되어 1939년 10월, 12월에 대구 지방법원 검사국에 넘어 갈 때까지 약 2년 가까이 엄청난 고문을 받아 이과정에서 노응호, 이두석 두분은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동지들은 절조를 꺾이지 않고 이겨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연구 자료에 의하면 왜관 비밀 결사그룹44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직업을 기록해 놓았는데 송재 선생

의 직업란에는 인쇄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자료와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생께서는 그 후에도 구국의 일념으로 만주로 건너가셔서 동지들과 함께 수년간 항일 독립운동을 하시고 향리에서 위장 사업체인 인쇄업을 경영하시면서 일경의 감시를 피해 반일 교재 인쇄 배포등 애국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조국 광복의 기쁨을 마지하시게 되셨다.

송재 선생께서는 광복된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됨을 심히 슬퍼하셨으며 많은 면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초대 민선 석적 면장으로 추대되어 일제치하의 탄압과 수탈로 곤경에 허덕이는 농촌 부흥을 위해

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신 후 1950년 9월 9일 천명을 다하지 못하시고 향년 40세로 운명하셨으며 2009년 3월1일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부터 선생의 독립운동사가 밝혀져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대통령 건국포장이 서훈되었다.

선생의 묘소는 고향인 경북칠곡군 왜관을 매원리 선영에 있으며 애국활동을 기념하는 기념비는 왜관읍 애국동산에 함께 활동하신 동지분 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건립되어 매년 8월.15일 광복절에는 칠곡군수가 주관하는 애국지사들 추모 헌화행사가 많은 유족들과 군민들의 참석하에 거행되고 있다.

- 子 대한 치과협회 회장 수구記

산악회 소식

9월 22일 10시. 아침 일찍 수원 지하철 7번 출구에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인원을 파악하고 버스로 갈아타고 30분을 달리니 칠보산 입구에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간단한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몸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하여 한 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하였다. 휴식을 취하면서 각자 가지고 온 간식을 꺼내 놓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땀에 젖은 몸을 식히고 하산하는 길은 즐겁기만 하다.

1시간만에 식당에 도착하여 오리백숙으로 식사



재경화수회 산악회

를 하면서 소주 한잔으로 즐겁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은 화기에애한 동족간의 즐거움이라 아니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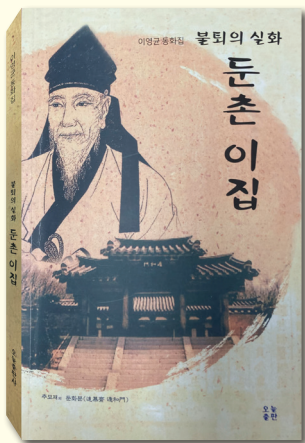
수 없다.

광릉부원군 승재 재무이사의 협찬금과 종성, 성문, 근찬 종인의 회비는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날 참석한 산악회장 종철, 산악대장 종덕, 산악회 전회장 시하, 광릉부원군 부회장 종성, 근찬. 문제. 명수. 선재. 현재. 진호. 복수. 영교. 무환. 운태. 종찬. 종우 회원 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행은 10월 27일 성남 둔촌 선조님 묘역 별초 정화 작업 실시로 대신하겠습니다

- 광이 산악회 산악대장 종덕記

이영균 종인 동화집 “불퇴의 실화 『둔촌 이집』” 발간



중견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본문(本門) 이영균(李永鈞) 시인이 “동화집 불퇴의 실화 『둔촌 이집』”을 펴냈다. 첫 번째 동화집 「푸른 강변마을의 느티나무」에 이은 두 번째 동화집이다.

작가는 후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선인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만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당시에는 세상에 이로운 듯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해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본 동화를 펴냅니다」라고 하였다.

본서는 광주이씨의 중흥을 이룬 둔촌 선생의 일대기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 형식을 빌어 펴낸 동화집으로 정사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작가는 많은 자료를 참고하였고 실사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과 고뇌가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특히 본 동화집은 어린아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저자는 많은 독자들에게 보급하고자 구매를 원하는 우리 종인들에게는 특히 염가로 제공하겠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이영균 작가는 광주이씨 목사공(諱 之柔)의 후손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2004년 격월간 「좋은 문학」으로 시 부문과 2019년 계간 「소설 미학」으로 동화 부문에 등단한 중견 작가이다. 「좋은 문학대상 제6회 한국 시인상」, 「인천 펜문학상」 등 많은 수상을 받았고, 시집 「하얀 아침」, 「금빛 하늘」, 「꽃씨가 될 때까지」, 「마음의 집 짓고 있다」 등 많은 작품집을 출간했다. 현재 국제펜한국본부 회원으로 탄천문화회원, 한국소설창작연구회회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퇴의 실화 둔촌 이집』

펴낸곳 : 오늘출판사

정가 : 18,000원 (종인들에게는 염가 제공)

연락 및 구입처 : 영진산업 031-996-6222

이영균 010-3302-6190

바로 고칩니다

광주이씨회보 제402호(2024. 9. 1) 10쪽 두 번째 단 「자랑스러운 광이 후손」 말미 혁준 종인의 계보 중 -용문(容旻)-혁준(赫竣)을 -용민(容旻)-혁준(赫竣)으로 바로 잡습니다.

둔촌시선

秋夜雨中書懷

病枕淒涼雨送秋。
殘燈明滅照深幽。
家書別後煩黃耳。
世事看來已白頭。
尼父何妨遲去魯。
張侯早識足封留。
幅巾藜杖川寧曲。
自愧如今訪舊遊。

가을밤 비가 오는 중에 회포를 적다

병침(病枕)은 처량한데 비는 가을을 보내누나
희미한 등불 깜빡이며 어둠을 비춰주네
떠나온 뒤로 집에 보낼 편지는 황이(黃耳)¹⁾만 괴롭혔고
겪어온 세상일에 머리 벌써 다 세었다.
이부²⁾(尼父)께서 거로(去魯)³⁾ 더디한게 뭐가 안될게 있었던가
장후(張侯)⁴⁾는 봉유(封留)에 만족할 줄 미리 알았노라
복건여장(幅巾藜杖)으로 후미진 천령(川寧) 고을에서
이제야 구유(舊遊)를 찾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네

주1) 황이(黃耳) : 개의 이름. 진(晉)나라 육기(陸機)가 경사(京師)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오래도록 고향의 집 소식이 없었다. 궁금한 나머지 개를 보고 웃으면서 집 소식이 궁금하니 네가 편지를 전할수 있느냐 했다. 개가 곧 알아듣고 꼬리를 흔들기에 편지를 죽통(竹筒)에다 담아 개 등에 매달아주니 개는 곧 달려가서 편지를 전하고 왔다. 그 뒤로는 번번이 편지를 전했다 한다. 그 개의 이름이 황이(黃耳)이다

주2) 이부(尼父) : 공자(孔子). 공자의 자가 중니(仲尼)라서 하는말

주3) 거로(去魯)...더디한 : 노(魯)나라의 환공(桓公)이 제(齊)나라의 여악(女樂)을 받아들여 정사를 게을리한 때문으로 공자께서 조국인 노나라를 떠나시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해서 이르는 말

주4) 장후(張侯) : 한(漢)나라 장량(張良)을 말함

送慶尙金廉使

嶺南金按部。
知我暗回腸¹⁾。
羅峴孤墳在。
源村一曲荒。
飛飛魂夢苦。
望望道塗長。
拜掃及秋晚。
黃花映酒觴。

경상도 김안렴사를 전송하다

영남(嶺南)의 김안²⁾부(金按部)는
나의 구곡간장(九曲肝腸)³⁾ 알 수 있을까
나현(羅峴)엔 외로운 무덤 있는데
원촌(源村)의 황폐한 모퉁이에 몸은 있다오
날고 날은 몽혼(夢魂)은 괴롭기만 하는데
아물아물 가는 길 멀기만 하네
가을이 늦기 전에 성묘(省墓)를 해야 할텐데
국화꽃 술잔 위에 얹 비치고 있구나

주1) 회장(回腸) :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마음이 편치않은 모양

주2) 안부(按部) : 관할 지역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안렴사(按廉使) 등의 도신(道臣)을 이르는 말

주3) 구곡간장(九曲肝腸) : 아홉번 굽이치는 간과 창자처럼 마음속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함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4년 9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춘수	10,000	경기 양평	이호순	10,000	경기 성남	이혜숙	10,000	경기 용인
이병후	20,000	경기 이천	이지환	10,000	경북 칠곡	이정우	10,000	전남 여수
이경재	10,000	광주 북구	이수백	10,000	대구 달서	이승록	10,000	경북 칠곡
이범재	10,000	경북 칠곡	이덕규	10,000	전남 보성	이 호	10,000	대구 북구
이용해	10,000	광주 동구	이용일	10,000	경기 의왕	이준식	10,000	경북 칠곡
이상철	10,000	대구 달서	이태호	10,000	경기 부천	이용천	10,000	경기 수원
이복재	20,000	경기 여주	이용익	10,000	서울 송파	이철민	10,000	대전 대덕
이문식	10,000	대전 서구	이종영	10,000	경기 동두천	이재봉	10,000	서울 서초
이홍식	10,000	경기 수원	이종화	10,000	서울 마포	이상구	10,000	서울 구로
이종구	10,000	경기 양평	이종진	10,000	충북 제천	이종규	10,000	경기 남양주
독립유공자 유족회 25X10,000=250,000			이용희	10,000	서울 은평	이경재	10,000	서울 중랑
			이승한	10,000	경기 평택	이양재	10,000	제주 도령
이용위	10,000	경기 성남	이수구	10,000	서울 서초	이남석	10,000	울산 중구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4年 10月 1日

<제403호>

廣州李氏會報

발행인 : 이 주 영

편집인 : 이 용 두

주 간 : 이 주 병

발행처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